

너를

83

2018 하반기

〈나눔터〉 83호를 함께 만든
기자단 Meka 4기를 소개합니다.



행복한세상_수지



즐거운세상_진



우리는우리_이수



송구리송단_단



여성의전사_민지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넌이 이미경 퍼넌날 2019년 2월 28일 만든이 노선이, 김신아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2890~1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미투, 나를 위한 말하기: 최김희정의 2001년 말하기 17년 후 오늘
- 8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집담회 : 아빠 성은 떼어냈지만

12 원대!상담소

14 열림터 다이어리

나는 '열림터 활동가' 백목련입니다.

18 생존자의 목소리

- 18 #MeToo 엄마에게 (쓰는 편지) (연재 2/2)
- 21 행동할 권리 (연재 2/2)
- 26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 : 나를 위한 최선의 세계
- 29 나비이야기

34 성문화읽기

- 34 다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생각하며
- 38 학교내 성폭력 · 성차별 몰아내기 프로젝트 : 〈#스쿨미투_화형식〉

42 시끌시끌 상담소

- 42 도전! KSVRC 활동가 영양강화: 백말띠 요리대결

46 아낌없이 주는 나무

48 훈훈한 기부

미투, 나를 위한 말하기

최김희정의 2001년 말하기 17년 후 오늘

보라

9

2001년 대학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던 생존자가 제안해주신 이 자리는

지난 17년을 돌아보며 #미투의 한가운데 있는

생존자들의 손을 맞잡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저녁,

생존자와 지지자들의 끈끈한 연대와 공감의

상담소 이안젤라홀을 꽉 채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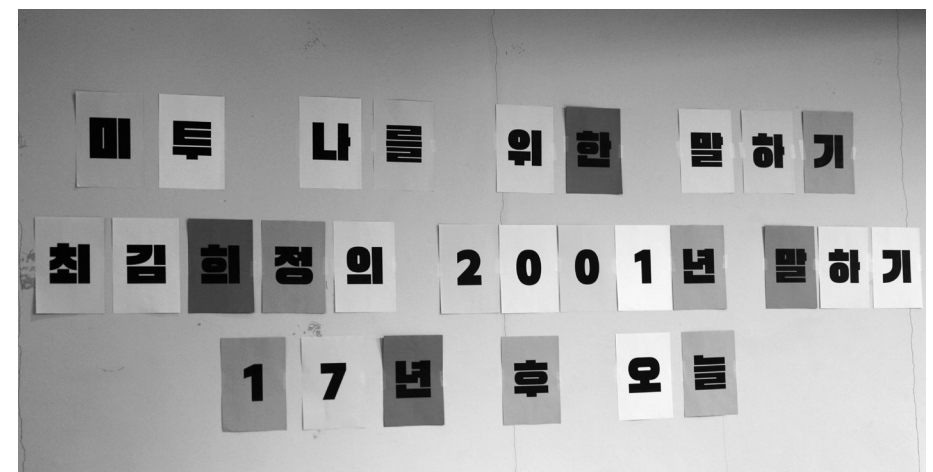
열림터 생활인 보라가 소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최김희정 님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열림터 선생님의 권유로 참석하게 된 자리였다. 최김희정 님의 교수 성추행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의 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17년 전의 여성인권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상황이 안 좋았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솔직히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 위축되어 있었다. 후원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곤 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데도 말이다. 생존자를 불행하고 연약한 피해자로 보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생존자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나 고민되는 마음과 내가 성폭력 생존자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했다. 하지만 그 자리엔 날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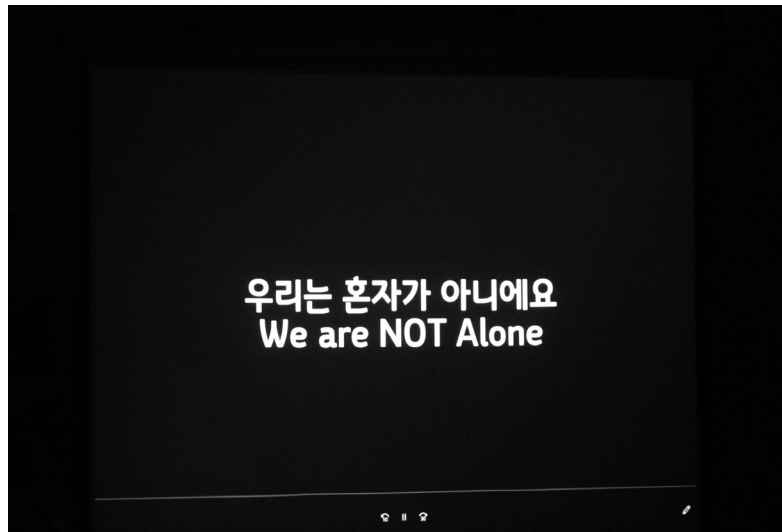
하고도 많은 생존자들이 함께 했고, 오래전에 미투를 시작하신 최김희정 님을 보며 용기를 얻어 자신이 생존자임을 밝히며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서야 진정한 의미의 ‘미투’, 연대의 힘을 이해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고, 그만큼 많은 아픔이 모였던 자리였기에 진행되는 내내 흘쩍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어떤 분의 “새벽마다 죽고 싶고 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런 순간이 선생님께도 있으셨는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라는 질문이었다. 울음 섞인 간절한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고통이 뭔지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끝이 없는 고통의 시간, 죽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나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친족성폭력 생존자이다. 내 삶은 나의 존엄과 권리, 자유가 없는 말 그대로 죽음 자체였고, 자연스럽게 매일 죽는 것만 생각했었다. 가족 중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특히 어릴 때 집을 나간 어머니 대신에 살림을 맡으신 할머니와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객식구처럼 먹는 것 하나도 눈치를 봐야 했다. 나는 계란의



● 미투, 나를 위한 말하기



● 함께 시청한 영상의 한 장면

로 만든 요리를 좋아하는데, 계란후라이 하나도 할머니 몰래 숨어서 먹어야 할 때면 살고 싶지 않았다. 먹는 걸로 눈치 보는 게 맞는 것보다 더 서러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간절하게 죽고 싶었으나, 살고 싶었다. 살고 싶어서 죽지 못하는 내가 밍고 원망스러웠다. 어쩌면 나를 포함한 많은 생존자들이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서, 잊히지 않는 지옥과도 같았던 기억이 주는 고통과 절망을 피해 평온함을 얻고 싶은 게 아닐까? 살아있는 한 계속 마주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나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까운 우리는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 내가 ‘일단 살자’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심리치료 상담선생님이 “언젠가 열림터에서 지내는 다른 생활인들을 비롯한 많은 생존자들에게 하나의 예시와 선택지가 되어 줄 수 있다”고 해 주신 말씀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고 무조건 살아내자고 다짐했다. 나는 나를 잘 안다.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

래도 꼭 살고 싶은 이유는, 나보다 어린 생존자들의 미래가 꼭 죽음이라는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다. 열심히 잘 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 더 높은 곳에 가고 싶다. 미래가 막연하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과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음으로 욕심이 났다.

그날 이후 “일단 살아내자.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 최김희정 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생존자 리더십>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단어와 함께 생존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래오래 곱씹었다. 미래가 전보다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기분이었다. 최김희정 님이 가신 길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며, 지금의 나는 스스로 생존자임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이지만, 그 분이 서 계신 지금 이 자리가 미래의 내가 서 있는 자리일 수 있도록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면 뿌리 뽑힌 나무를 떠올린다. 뿌리를 내릴 땅이 없음에도 말라죽지 않고 기어코 살아서 풍성하게 잎이 가득한 나무를 떠올린다. 하고 싶은 것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아서, 남들보다 더딘 속도에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내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리라 믿는다. 이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집담회

아빠 성은 떼어냈지만

단

9

2018년 10월 23일,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진행된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집담회]

〈페미니스트 5인의 가족 이야기: 아빠 성은 떼어냈지만〉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과 배경을 가진 페미니스트 다섯 명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을 둘러싼 규범을 다시 바라보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

함께했던 자원활동가 단의 소감을 들어보시겠어요?

‘여성과 소수자가 나답게 살기 위한, 섹슈얼리티 집담회’에 페미니스트 5명이 모여, 각자의 가족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참석했다. 단지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상을 만들지만, 다른 가족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정상가족의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집담회를 듣고 난 후 이 말이 생각났다. 나 역시 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해온, 오직 한 가지의 시각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섯 페미니스트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는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였다.



● “극한직업 효여자 -” 불꽃페미액션의 시원님 발언 중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 준 5인 중 한 분은 퀴어페미니스트 ‘동희’님이다. 스스로를 ‘돌보고 돌봄받느라 정신없는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동희님은 ‘돌봄’의 의미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가족의 대표적인 기능은 ‘돌봄’이고, ‘여성의 돌봄 노동’이라는 용례처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만 여겨지기도 한다. 가족중심적인 사회에서 진정한 돌봄은 가족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동희님은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가족이 경제적인,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오히려 불편과 억압과 폭력의 장소라면, ‘가족’은 소수자와 약자에게 최선의 공간인 것인지 되물었다. 정상가족에서 벗어났을 때 돌봄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존재 자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동희님은 성소수자 운동을 함께 하는 친구들과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돌봄, 친밀함을 나누고 있고, 서로의 생활을 지지하고 조력하고 고민하고 같이 설계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족의 사회적 의미로만 보았을 때 ‘가족’에 가까운 것은 이들이다. 자량은 아니

지만, 나는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동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요즘 가족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다. 바로 가치관이 다른 아빠와의 갈등이다. 가끔 성차별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할 때, 아빠를 지적하기도 하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싸움과 대화의 단절 뿐이었고 가끔 내 말을 무시하는 아빠가 밉곤 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빠인데, 때면 다투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또 아빠와의 논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나의 고민이다. 그래서 집담회 전, 페미니스트 다섯 분들의 소개에서 나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시원님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살짝 기대되었다. 시원님도 가족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역시나 힘들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가족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 변화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 내가 아빠를 미워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바로 소중한 사람, 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싸



● 발표를 마친 페미니스트 5인(희원, 지선, 동희, 감이, 시원)과 사회자 신아, 활동보조인 초원

움은 나를 너무 지치게 한다. 이에 대해 시원님은 다른 강의에서 들었던 말을 해주었다. ‘교육은 국가가 맡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변화의 선두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자신들이 바꿔 나가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대한 몫은 우리만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약 이 과정이 힘들어서 지친다 해도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 시원님의 말은 마치 ‘괜찮아, 잘 하고 있는 거야’라며 나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위로와 연대의 감정은 감이님의 말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잘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서로 부족한 것, 시행착오들을 공유하며 힘을 얻는 것이 연대이고, 그것이 곧 이 집담회의 목적이다.”

완벽한 출발점은 없다. 고민을 공유하고 위로와 힘을 얻고 연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출발이며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번 집담회는 일상에 지쳤던 페미니스트들에게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페미니스트 5인들과 참여자들의 동의와 반론, 존중과 배려가 섞인 2시간 동안의 대화들은 마치 여러 색을 가진 선들이 얹히고 섞여 단단한 매듭을 만드는 것처럼, 집담회는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매듭과 같았다. 부득이하게 나의 경험과 가족 이야기를 중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 모든 분의 대화를 다 적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히기에는 조심스러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런 집담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페미니스트 다섯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싶다. ㉠

7월

- 7/3~31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4~8강
- 7/7 낙태죄 위헌 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 7/12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강의 3강 <연애 각본 새로 쓰기>
- 7/14 2018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라운드>
- 7/26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강의 4강 <섹스의 조건 구성하기>
- 7/26 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8월

- 8/9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5강 <페미니즘 관점에서 시민권 다시 보기>
- 8/14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 8/18 5차 성차별성폭력끝장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못살겠다 박살내자>
- 8/21 2018 후원의 밤 <든든하게 함께가기>
- 8/23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강의 6강 <비혼으로 살아가기>
- 8/29 차별금지법제정토론회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린다>

9월

- 9/8~9 여성주의 자기방어캠프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 9/15~16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말하기참여자 숙박 워크숍
- 9/19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 "그 예술은 바뀐다"
- 9/29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 <269명이 만드는 형법 269조 삭제 퍼포먼스>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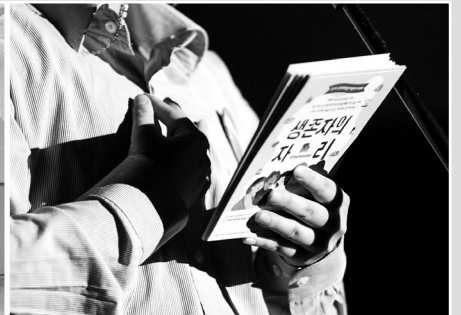
- 10/5~11/2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말하기참여자 사전워크숍
- 10/20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 10/23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집담회 <페미니스트 5인의 가족 이야기:아빠 성은 떼어냈지만>
- 10/31 미투, 나를 위한 말하기_최침희정의 2001년 말하기 17년 후 오늘

11월

- 11/3 2018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생존자의 자리 Everywhere>
- 11/10 2018 광장액션퍼포먼스 <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 11/19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
- 11/29 KSVRC 회원놀이터 <열굴, 그 맞은편> 공동체 상영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MOU 해단식
- 11/29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12월

- 12/1 6차 성차별성폭력끝장집회 <#결국엔바꾼다 #미투가_우리가해낸다>
- 12/7 2018 한해보내기 <거친 페미들의 송년회>
- 12/21 2018 축성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 기도회
- 12/27 회원소모임 Meka <#스쿨미투 화형식- #대신 태워드립니다>



핀다
상담소

나는 '열린터 활동가' 백목련입니다.

백목련

9

열린터에서 성폭력피해자들과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백목련 활동가가 심터활동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2년 동안 생활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좌충우돌 활동기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까? 여성단체, 그 중에서도 심터 활동가가 되는 것은 전혀 계산에 없던 일이었다. 오래전에, 학교 선배이자 상담소 전 활동가인 토리가 내게 열린터 활동을 제안하면서 앞으로 심대와 만나는 활동에서 열린터 경험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때 아주 몹서리를 치며 거절했다. 열린터 생활인과 개별 성교육을 하고 있긴 했지만 열린터 생활인들에게 혹시나 상처를 줄까봐 무리한 부탁도 잘 거절하지 못했고, 까칠하고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아주 분명한 나로서는 생활인들을 대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열린터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은 건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심대 성교육을 한 지 5년 차쯤 되었을 때, 심대들이 나를 '대화는 좀 통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런 사람'쯤으로 여긴다고 느꼈다. 나도 내가 떠난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과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알 길이 없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다행히 나에게 인공호흡을 해준 건 청소년심터와 대안학교에서 반 년 정도 심대들과 보낸 성교육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디 한 번 해봐' 혹은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라고 나를 기선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나에게 나를 궁금한 걸 물어보고 내 사생활도 캐고 싶어할 만큼 친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었다.

수업 전후로 담당교사나 사례관리자들과 '00이는 이래서 아마 저랬을 거'고 '★★이와 ◎◎이 사이를 고려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 몇 시간, 몇 회기의 수업만으로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나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담당교사와 사례관리자가 부러웠다. 앞으로 계속 이 현장에 있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열린터 채용공고가 났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지레 겁도 먹었지만 '(오래 보는 관계는) 지지고 볶는 재미

가 있습니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채용도 되기 전에 이전에 다니던 곳을 퇴사하고 난 후 초조한 시간 끝에 나는 열린터 활동가가 되었다.

● VR체험 하러가서 생활인보다 더 신난 나. 버랑에서 케이크 굽기 게임이었는데 생활인이 자꾸 놀래켜서 눈물이 찔끔났다.



처음에는 엔돌핀이 마구 마구 솟아올랐다. '생활인들은 내 진심을 알아줄거야',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지', '지금의 내 수고와 노력이 생활인들에게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쓰고 보니 내가 그 당시 왜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내가 열린터 활동가로서 적합한 사람인지를 매일 괴로워했는지 알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상상 속의 열린터는 입사 한 달 만에 와장창 깨졌다. 생활인이 실현 불가능한 일을 자꾸 벌여서 이래저래 자



● 생활인들이 만든 손가락별!
3월에 선유도 소풍가서 썸박한 인증샷
건진다고 오돌오돌 떴었다.

르고 방향을 틀다보니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했고, 내가 애써
공들여서 뭘 해놓아도 그걸 발로 차버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생
활인들이 밍고 야속했다. 사고치고 돌아온 생활인과 면담 전에 '니가 어떻게 나
한테 그럴 수 있냐'며 길길이 날뛰기도 했다.

생활인도 나도 야생동물일 때 선임 활동가가 나를 붙들어 놓고 '그건 네 욕
심'이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나중에 후회할 여지
를 줄이기 위해서이지 생활인이 그 노력까지 알아주길 바라는 건 결국 내 욕심
에 상처받고 생활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다. 그렇다, 과잉은
늘 문제다. 내 과도한 기대와 애정은 나와 생활인 모두에게 불행이었다. 이제는
투입이 있을지라도 결과는 미미하거나 아예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그리
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다. 난 정말 열림터 생활인들 덕분
에 많이 큰 데다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때로는 생활인들과 티키타카하며 잘 지내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외롭게
할 때도 있다. 내가 열림터에서 일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겠다'며 안쓰러운 표정
을 짓는 사람도 있고 열림터 활동가를 밥 주고 재워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하
찮은 일을 하는 여자들쯤으로 하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생활인들은 피해 경
험을 했다뿐이지 다른 십대나 또래 성인들과 비슷하게,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심심할 땐 또 심심하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호소한
다면 병원에서 안정하고 있겠지. 아니, 성폭력 피해라고 하면 무조건 회복 불가
능할 정도의 고통만 떠올리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생활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악의 없는 편견이다. 그리고 돌봄 노동은
왜 이렇게 늘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겠다. 늘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
은 돌봄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스며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어느 드
라마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도무지 돌봄 노동자를 존중할 줄 모르니 이 일이 얼
마나 수고로운지 알게 겁라면만 주구장창 먹일까보다!

곧 있으면 만 2년차 활동가가 된다. 아직도 종종 '생활인들은 왜 그래?' 같은
하등 쓸모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내 의사가 너무 분명한 바람에 생활인들이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이 자리가, 이 공간이 좋다.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아 골이 울리다가도 생활인들과 수다 떨며 까르르 웃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
워진다. 굳이 침대 옆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랑 놀아달라고 약 올리는 것도
재밌다. 생활인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나도 생활인하고 비슷하게 생
각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앞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
고 우아한(생활인들의 비웃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열림터 활동가 백목련
이 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오래 열림터 생활인들과 지낼 수 있게 함께 고민하
고 함께 후원배가해요! ☺

#MeToo 엄마에게 (쓰는 편지) (2/2)

리아

*이 글은
82호부터 2회
연재됩니다

엄마,

“일단 쓰러뜨리고 자면 된다”는 말은 내가 대학 때도 들었어. 남자들은 일단 여자를 강간하면, 일단 삽입을 하면 자기 여자가 된다고 믿나봐. 그게 사랑이고 연애인 줄 알더라. 아빠 세대는 그게 결혼인 줄 알았겠지. 그건 성폭력이고, 정말 나쁜 거라고,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고,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그때는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나봐. 그렇게 몇 십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던 90년대 말에도 2000년대까지도 일단 덮치고 보라는, 강간하고 보라는 말이 우리 과 안에서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도 통했겠지. 대학교 안에서 그렇게 성폭력이 많았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야. 일단 쓰러뜨리면 무조건 감옥 간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그 놈들을 다 감옥에 넣었어야 했어.

목욕탕에서 과일가게 아주머니랑 엄마가 이야기 했듯이, 요즘은 시집 갔다가 돌아오는 세상이잖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정말 다행이야. 남자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사이 좋게 같이 사는지 모르는 거 같아. 아무도 남자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나봐. 엄마가 남동생에게 설거지, 밥하기, 세탁기 돌리는 것도, 또 다른 것도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

내 친구는 결혼해서 신랑한테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려서 빨래 넣고, 집안 청소를 가르치기까지 5년이 걸리도록 싸웠대. 너무 잘했지? 나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 했어. 잘했다, 정말 잘했다고. 나는 그런 기본도 못하는 누구라도 하루도 같이 못 살 거 같아. 엄마는 40년을 아빠의 밥과 설거지와 빨래와 청소를 다 해주고 있지만, 나한테는 내 친구같이 5년을 남편이랑 싸울 인내심이 있을 것 같지 않아. 40년을 밥해주고 챙겨줄 인내심은 더더욱 없겠지. 나는 아마 고무장갑을 던지고, 빨래들을 썩게 했을 거야... 엄마, 엄마 딸은 아주 못되게 되어 버렸어.

나는 이제서야 왜 엄마가 우리에게 성교육 같은 건 전혀 시키지 않았는지, 딸인 나에게 매일 “조심해라, 조심해라”고만 했는지 알겠어. 엄마한테는, 엄마의 인생에서는, 여자는 무조건 성폭력을 조심해야 하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인생 망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엄마처럼 될까봐 엄마는 너무 두려웠던 거야.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에 도전해 볼 기회가 없었던 엄마의 삶을 나도 살까봐, 엄마는 조마조마하고 애가 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을 안 하겠다던 나에게 엄마 뜻을 강요하지 않았어. 나하고 싶은대로 해보라고 허락해 준 거지.

엄마,

나는 너무나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10대, 20대였기 때문에, 성 에너지도 정말 많았는데 그걸 인정하고 감당하고 잘 다루는게 겁났고,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문화에 대해 나는 너무나 몰랐어. 그리고 그런 걸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30대가 되어서야 올라왔어. 엄마는 왜 전혀 몸을, 성을 가르치지 않았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엄마도 그런

성교육 같은 건 받아보지 못했고, 엄마가 그런 폭력을 당했으며, 한국 사회 어디를 가든 여자의 몸과 성은 폭력과 희롱의 대상이었다는 걸. 엄마가 “남자는 다 짐승이다” 늘 그랬는데, 나도 티비나 영화를 보면 짐승이 되는 거 같아. 이렇게 여자가 섹스 기계처럼 나오는 포르노는 3만 명이 봤다고 나오는데, 이 3만명은 다 누구일까. 우리는 다 짐승일까? 이런 걸 보다 보면 남자 짐승으로 길들여지는 걸까?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는 걸 훑쳐보면서 깔깔대고 흥분하는 남자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걸까?

언젠가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가 남자와 여자가 눈을 마주하며 다정하게 섹스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었어. 둘이 지나면 아기가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한다잖아.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다정하게 눈을 마주치며 하는 행복한 섹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뭐 스님이나 수녀님이 되겠다고 해도 훌륭하겠지만.

엄마, 그렇게 웃어줘서 고마워.
나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 엄마의 웃음을 보면.

엄마, 우리가, 우리 세대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웃고 있는,
울지도 못했던 엄마들의 뒤통까지 할게.

엄마, 우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

*이 글은
82호부터 2회
연재됩니다

행동할 권리

(2/2)

만두

내가 성인이 되어 이제야 내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됐을 무렵, 엄마가 암에 걸렸다. 난소암 3기 말이라고 했다. 나는 바보같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 엄마라며 엉엉 울었고 자처해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가게에 나가 생활비를 벌었다. 아픈 엄마는 더 철저하게 나를 장악했다. 이십여 년간의 내 모든 고통들은 자막이 없는 영화처럼 읽히지 않았다. 암환자라는 단어는 그 모든 사실을 가려버렸다. 엄마는 죄책감을 이끌어내 가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했다. 나는 진실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믿었다. 지원 없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엄마의 역할을 모두 대신했다. 같이 살게 된 오빠와 아빠의 끔찍한 속옷 세탁부터 설거지와 살림꾸리는 일을 빠짐없이 해내야 했다. 엄마는 계속해서 나에게 끔찍한 사상들을 주입시켰다. 엄마가 죽으면, 네가 오빠와 아빠에게 꼭 엄마처럼 챙겨야 한다. 오빠는 이렇고 아빠는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해. 요양원에서 엄마가 집에 올라오는 날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유 없이 나에게 모든 분노와 울분을 퍼부었다. 나는 화를 쏟아낼 곳도, 슬픔을 표현할 곳도 없었다. 한번은 엄마에게 학대 받은 일들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엄마는 사과하지 않았다. 자기는 어쩔 수 없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나를 학대할 거라고 대답했다.

이십여 년간의 모든 감정을 꼭꼭 눌러 담아온 내 마음이 한계치에 다다를 무렵, 나는 홀리웃 대학교 상담센터를 찾았다. 그 때 처음으로 나에게 오직 나를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 같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수록 그 동안 내 세계가 왜곡되었음을, 그리고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럴수록 집에 있는 것이 힘들었다. 방문을 잠그고 있어도 내 마음의 불안은 더 커져갔다. 촛불집회를 다녀온 몇 주 후,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해 나는 가해자인 오빠에게 화를 냈다.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해온 모든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물론 방관자인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싸우는 소리에 왜이리 소란이냐며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쉰 뒤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오빠는 엄마에게 쪼르르 연락했고, 엄마는 폭언 문자를 내게 보내면서 집을 나가라고 협박했다.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경찰서에 가자고, 나를 낳은 자신의 죄가 가장 크다면서 말이다. 물론 항상 하던 대로 자살한 큰고모를 닮아 끔찍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집을 나와야겠다고 결심했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갈 곳도, 돈도 없이 무작정 집을 빠져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그리고 친구의 집을 전전하며 고생 끝에 감사하게도 열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사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바로 씻은듯이 내 마음의 상처가 나은 것은 아니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집을 나와서도 끊임없이 내 자신과 고군분투해야 했다.

열림터 선생님들과 상담 선생님은 처음 나를 보았을 때의 느낌을 갑옷을 꿰뚫어 찔러 준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었다. 감정을 표현했을 때마다 좋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그 모든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내 자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 속으로는 따뜻한 느낌을 갈망하지만 겉으로는 상처받기 무서워 가시를 한껏 돋친 고슴도치 같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들은 게 폭언이라 내 말의 온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해서 타인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다. 열림터 선생님께는 왜 저한테 잘해주시냐고 물었다. 웃기지만, 정말로 나에게 뭔가를 바라는 행동이라고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좋

아해준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집에서는 항상 나를 나쁜녀이라고만 했는데, 열림터에서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 반발감에 되려 선생님들의 마음을 거부했다. 내 모든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가능한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제라도 받고 싶은 엄마의 조건 없는 따뜻한 사랑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열림터에서의 첫 생일날,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축하 받고 싶지 않다며 평평 울었다. 선생님은 태어나줘서 고맙다면서 나와 같이 울어주셨다.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켑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동안 뭉뚱 얼었던 마음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제서야, 내 마음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안아줬으면 하는, 너무나 사랑 받고 싶은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는 물론 내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좋은 학원에 보내줬지만 정말 내가 바란 사랑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옷을 나에게 사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었다. 상담 선생님은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만큼은 아니겠지만, 열림터에서의 올바른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가자고 하셨다. 그래서 웃기지만 성인인 나는 아기처럼, 걸음마를 배우듯 열림터 선생님께, 상담 선생님께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힘들다고 투정도 부려보고, 고민이 있을 땐 털어놓기도 하고, 어리광도 부렸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었다. 선생님들은 나를 채근하지 않고 차근차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아무 감정도 없이 무채색 영화였던 내 삶이 열림터에 입소한 이후로 조금씩 수채화로 물들어갔다.

퇴소를 준비할 무렵, 나는 한 번 더 행동할 용기를 냈다. 바로 아빠를 만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아빠에게 연락을 했다. 가족 아무에게도 나를 만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근 일년 만에 아빠를 만났다. 내가 집을 나간 이후 유일하게 나를 찾으려고 실종신고까지 한 아빠. 나는 아빠에게만은 내

모든 걸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이십여 년간 참아온 울음을 꼭꼭 삼키며 어느 카페에서 아빠를 만나 엄마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아빠는 오빠의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엄마의 학대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고 했다. 아빠는 울면서 그동안 무심하고 방관했던 자기자신을 인정했고, 미안하다고 내게 사과했다. 나는 엄마의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빠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에게 내 피해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받고 사과 받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내 상처가 조금은癒어졌다.

그 뒤 나는 열림터를 퇴소해 무사히 보금자리를 틀었고, 나만의 공간에서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사과는 받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더이상 아빠와 연락하지 않았다. 정신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즈음, 세상이 미투 운동으로 시끌벅적해졌고 몇 주 내내 버스에서, 인터넷에서 각종 미투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달라진 나와, 그리고 달라진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미투 운동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불편하기를 바랐다.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나를 떠올리기를, 이제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지겹다’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문을 열어놓아도 괜찮은, 마음이 편한 내 집에서 몇 년 간의 내 선택과 행동들을 떠올려본다. 엄마의 마지막 폭언을 듣고 나는 집을 나왔고, 엄마는 집을 나간 나를 찾지 않았다. 2017년 2월, 고생 끝에 감사하게도 열림터에 입소를 했고, 내 행동할 권리를 행사한 결과로 박근혜는 탄핵됐다. 다시 한 번 뉴스가 대통령 선거로 시끌벅적하게 돌아갔고, 나는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며칠 전, 나는 통일이 한 층 가까워진 가슴 벅찬 뉴스를 봤다. 지금 나는 내가 선택한 세상 속에서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촛불시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상담센터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집을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엄마나, 아빠나, 오빠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그 가족 안에 그대로 갇혀 살았을 것이다. 나는 내 가족을 선택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20여 년을 외롭게 슬퍼하고 분노하며 살았다. 내게 주어진 환경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나는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나 행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행동일지 몰라도 나처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행동이 내 마음 속의 상처받은 작은 어린아이를 위로하고 내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는 행동하며 이 모든 순간들을 살아갈 것이다. 내 모든 선택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누군가 지금 내 글을 읽고,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반드시 행동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 세상 어딘가엔 누군가 내 선택을 지지해주고, 나의 이야기로 같이 울어주고, 내 말을 믿어주고, 가족보다 더 나를 아껴줄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니까. 내가 선택한 삶이기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저를 도와주신 열림터 선생님들, 상담 선생님,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

나를 위한
최선의 세계

김봄

9

‘일상회복 프로젝트’는 성폭력 피해 이후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생존자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2018년 황금명륜 회원님의 지정기부금으로

생존자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가거나 함께 하고 싶은 친구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김봄님의 후기를 전합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일이 참 힘들었다. 항상 긴장된 몸, 피로로 누적된 상태에서 무언가 배운다는 에너지조차 내기 쉽지 않았다. 그렇게 일상은 늘 전쟁 같았다. 일상회복 프로젝트에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지원서를 제출했다. 그림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 같은 것이기도 했고,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것이기도 했다.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이 마음들을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내게는 있었다. 집 근처에 미술학원에 수강을 하고, 선생님의 첫마디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 말이 참 낯설었다. 정말 좋아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얼른 나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내 안에 있었구나, 마치 미션을 치러

내듯이, 내가 그렇게 조급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에게 회복이란 무엇일까. 회복의 시간이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첫 수업에서 선 하나를 긋고, 선과 선이 만나서 무수한 선들을 그었다. 선을 그으면서 딱딱해진 내 몸이 느껴졌다. 몸이 긴장하니 선들도 삐끗거리기 시작했다. 도형들을 그리고 명암을 넣고, 울퉁불퉁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지긋이 어깨를 누르시며 ‘제가 마무리 해볼 테니 잘 보세요.’ 라고 말했다. 울퉁불퉁한 선들을 지우개로 누르고, 다시 쓱쓱, 선을 긋고 도형들을 제 자리를 찾아 나갔다. 그 과정들을 선생님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았다. 내가 잘 하지 못해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걸 참 오랜만에 느껴봤다. 사건을 진행하고, 피해를 말하고, 대응계획들을 짜고, 늘 그렇게 나에게 선택과 결정이 돌아온다.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고, 어떨 때는 후회한다. 그럴 때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러지 못했다.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수업이 지날수록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는 오로지 내 앞에 있는 스케치북이 세상의 전부이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 그냥 이곳에서 그리고 있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수업이 조금씩 진행될수록 나는 무엇을 그리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그렇게 힘들고 아팠는지 좀 더 집중하고 싶었다. 말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은유적이고 감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마음이 가리키는 색깔, 밝음과 어둠, 크기와 시선. 어디에도 구애받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면 엄청 속이 시원해질거 같아서...

나는 오랫동안 예술을 해왔다. 주로 영상, 설치, 사진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한다. 예술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기준에 갇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찍어야 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크게 뽑아야 하고. 내가 그림을 선택한 것은 그냥 잘 하지 못하니까, 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나에게 어떤 기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예술을 하고 싶었다.

얼마 전 서지현 검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무언가 피해자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거렸고 눈물이 났었다. 이 추한 가해의 세계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일이자 나를 위한 최선의 세계이다. ㉸

나비 이야기

나비

9

2018년 9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피빈을 통해 진행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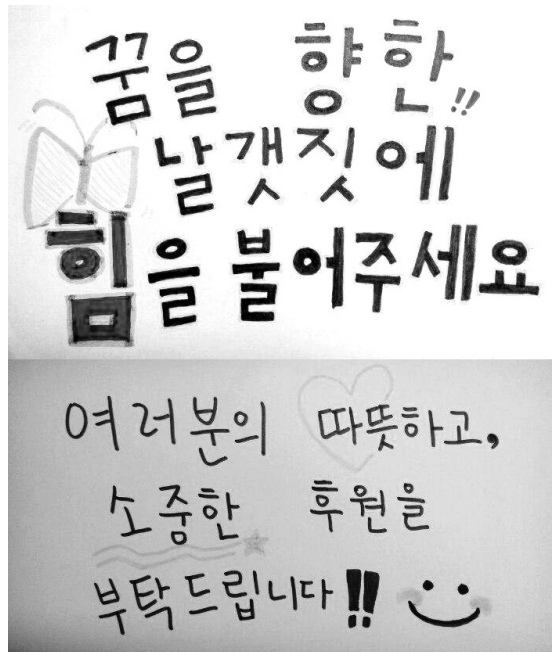
모금함은 목표금액 555만원을 달성하여 나비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 두 살, 2017년 8월 24일에 열림터를 퇴소한 ‘나비’예요. 소식지에 첫 글을 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껏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는 생각에 23년간의 제 삶과 퇴소한 이후의 여정을 말씀드릴까 해요. :-)

저는 가정 내 친아빠의 성폭력과 친오빠의 구타, 폭행 그리고 나머지 여자 가족들의 방치로 2016년 6월 9일 입소하게 되었어요. 원래 며칠 더 늦게 입소하려고 했는데, 동생에게 가출 계획을 들킨 걸 제가 바로 눈치 챈 날에 불가피하게 가출하게 되었어요. 증거물들을 가득 넣은 큰 상자를 하루 종일 들고서 돌아다니던 입소 첫 날이 생각이 나네요. 열림터에 들어와서는 바로 친아빠의 성폭력에 대한 법적 고소를 시작했어요. 또한 바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도 하고, 얼마간 갈 길을 찾지 못해 방 안에서 인생에 대한 고민과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마음을 먹고 수능 준비를 했어요. 대학에 가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으로요.



● 나비가 직접 만든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온라인 모금함 표지

스물 두 살이 되던 해, 저는 17년도 수능 결과를 토대로 지원한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에 모두 합격하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려면 제가 모 장 학재단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상담원들은 대부분의 학생 들에게 안내하는 평범한 서류와 달리 조금은 특별한 제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 안내는 낯설었던지, 서류 제출 마감 1분 전까지 열 몇 분께서 모두들 제게 잘못된 서류들을 알려주셔서 합격한 모든 대학의 입학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쉼터 퇴소자에게 지원해주는 자립지원금 500만원은 갑자기 제 순서부터 성인 입소자에게는 주지 않을 거라는 방침이 내려왔어요. 저는 혈 혈단신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채로 몇 달 후 퇴소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얼마 동안 이 상황에 대한 무서움에 멍해있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일어나, 점차 쓰리-잡(일터 세 곳에서 근무하는 것)과 수능 재도전을 시

작했어요. 그 당시 롤모델은 새로 입소한 만두였어요. 만두가 굵은 상황에도 쫓 쫓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만드시 이 상황을 뛰어넘으리라!' 다짐을 했어요.

퇴소를 하고는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여성 대상 쉼터하루에 입주했답니다. 한 구석에는 상자들이, 한구석에는 책상이, 나머지 한 구석에는 옷걸이가 있던 그 집은 저의 첫 번째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저는 평일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주말에는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했고, 남은 시간에는 피부 임상 시험 알바에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지원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17시가 되면 1시간 자고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바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어요. 23시가 되면 반드시 잠들었고, 아침에는 편의점에 출근할 지하철을 잡기 위해 5시경에 일어났어요. 밥은 편의점에서 가져온 식품 폐기물들을 밥그릇에 비벼 먹었어요.

쓰리-잡을 시작한 이래로 통장에 월급이 찍힐 때마다 저는 돈이 점차 많아져도 긴장을 풀지 않고 안심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목표를 떠올렸어요. 월급이 쌓일 때마다 기뻐하는 한편, ATM기의 작은 거울에 비춰진 지친 얼굴과 낡고 헤진 신발에 미안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 달의 시간을 보내다보니 천 만 원을 모았고, 18년도 수능을 보게 되었답니다.

수능 당시 지진이 일어나 수능 시험 날씨가 연달아 연기되어서 EBS 교재들을 더 보았어요. 마침내 수능날, 열림터 목련샘의 지인이 해주신 따뜻한 죽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그날 수능을 무사히 잘 치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노랑 고 붉은 노을이 참 예뻐고, 긴장이 풀리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지원한 학과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선택한 간호학과였어요. 저는 대입 면접을 홀로 준비하고자,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면 도서관 휴식공간에서 22시까지 연습했어요. 공책에 각 대학 사이트의 면접 예상 질문들을 하나씩 쓰고

답변을 준비하고, 휴대폰 카메라의 녹음 기능으로 저의 말을 다듬고, 면접장에서 있을 입장부터 퇴장까지를 동영상으로 찍으며 각본대로 연습했어요. 2주간 지방 곳곳에 면접을 보러 다녔고, 합격한 대학 중 제가 선택한 곳은 대학병원이 있고 재단 장학기금이 풍족한 곳이었어요.

저는 이제 '간호학생 나비'예요. 공부와 과제의 양이 많고 아르바이트도 힘이 들지만, 저의 소중한 꿈과 미래,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야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서울로 다시 돌아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을 제가 되어 있겠죠? 제가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 구하는 것을 스스로 찾고 얻으며,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은 뒤 하늘에 올라가보니 천사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두껍고 단단하게 칭칭 포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천사에게 왜 그렇게 선물을 포장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하기를, '하늘나라에서 땅에 있는 선물 주인에게 선물이 전달되기까지 과정이 험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 선물 속 내용물은 행복이고,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을 빌려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드려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힘든 일도 잘 헤쳐나가기기를 바라며 <나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해요. :-)

나눔터 84호
<생존자의 목소리>
투고 안내

**VOICES FROM YOU,
THE SURVIVORS**

생존자의 경험과 삶이 담긴 목소리를
생존자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형식: 에세이, 그림, 시 등 자유형식
분량: A4 3매 이내 (1회 게재),
A4 6매 이내 (2회 게재)
보내실 곳: KSVRC@SISTERS.OR.KR
문의: 02-338-2890
기간: 2019년 4월 30일까지

유한국성폭력상담소

다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를 생각하며

감이

9

지난 11월 3일 <생존자의 자리>를 마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에 대한 소회를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감이가 들려드립니다.

“들어라 세상아 나는 말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에 생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시작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이하 말하기대회)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생존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피해와 치유라는 말로 단순하게 정리될 수 없는 생존자의 삶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알려내는 확성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대회 이후 열 네 번의 말하기를 거치며 말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음악으로 그 형태를 달리하며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왔습니다.

말하기대회가 시작된 지 15년, 2018년 <생존자의 자리> 말하기참여자들은 매 사전워크숍마다 자신의 경험을 곱씹어, 언어로, 몸짓으로, 마음으로 가다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캐시는 원고를 다섯 번 고쳐쓰며 멘탈이 바닥을 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고되게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리나는 혼들림 없이 단호한 태도로, 지지자들을 신뢰하며 안전감을 느끼면서 한 생애에 걸쳐 매번 다른 형태의 경험들을 내어놓았고, 그중에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을 말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하여 정리해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피해 경험을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면서 더이상 묵은 체증이 가슴을

● 제1회 생존자말하기대회
<들어라 세상아 나는 말한다>
공식포스터



누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명선은 투박한 선에서 느껴지는 섬세함으로 채워진 강인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참가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녀들에게 뿐 아니라 이 만남과 과정을 가능하게 했던 역대 말하기대회의 말하기/듣기참가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말하기대회는 상담소와의 인연의 시작이었고, 한때는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대회의 기획단으로 자원활동을 하면서 여성운동을 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제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생존자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물같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무게감만큼이나 큰 책임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해도 비난받지 않는 사회가 올까?’라고 반문했던 지난 날에, 말하기대회의 공간은 해답같은 곳이었고, 그 공간을 이 사회로 확장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이자 반성폭력 활동가인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대회가 없는 상담소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하기대회를 통해 얻었던 용기와 연대의 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저의 숙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생존자로서 그 누구의 비난과 판단에서도 자유로운 상태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경험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시간과 공간을 어떤 이들과만 제한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더 큰 말하기대회의 무대가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8년 3월, 미투시민행동에서 기획하고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2018분동의의 이어 말하기>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이들이 거리와 열린 공간에서 말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제 새로운 공간과 세팅으로 반성폭력운동의 지평을 더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기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경험이지만, 그만큼 활동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과 기획,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낼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활동가들에게는 고된 작업입니다. 15년이라는 역사와 그 시간을 공유하는 이들이 가진 신뢰의 무게는 짐작보다 더 무겁습니다.

말하기대회의 여러 지향점 중에서 도무지 함께 이룰 수 없는 두 극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이상 움츠리고 숨지 않는 당당한 말하기”와 “그 어떤 편견과 비난에서도 자유로운 안전한 말하기” 이 두 지점의 간극은 좁히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나선 생존자들에게 쏟아지는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말하기대회를 시작하던 2003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기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 정작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가닿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은 상담소의 활동가로서, 상담소를 찾는 피해생존자들을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성폭력운동을 하는 주체”로 만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 2018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생존자의 자리>

“더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은 매번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활동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로 세워야 하는 정의와 성평등을 만들어가는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기에 무대에 서는 생존자들은 많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자의 피해 치유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말하기를 위해 말하기대회 전 짧게는 4회기, 길게는 17회기에 달하는 사전워크숍을 준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실질적 목표가 ‘무대’라는 공간에 한정될 때 말하기참여자들은 그 ‘무대’를 거대한 ‘벽’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회 변화를 위해 자신의 피해경험을 도구화했다고 오해하는 말하기참여자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해를 전시하고, 지지와 응원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기 위해 섬세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지 않을 때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소 이안젤라홀에는 2003년부터 시작된 말하기대회의 역대 포스터들이 전시된 “말하기의 벽(the Wall of the Speak-out)”이 있습니다. 오늘 2018년 <생존자의 자리> 포스터 액자를 걸었습니다. 전기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새로운 액자를 걸자 다음 말하기대회 포스터가 들어갈 빈 자리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말하기대회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상상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말하기대회를 한 해 쉬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말하기대회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말하기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생존자의 존재와 목소리 드러내기”였다면, 이제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생존자들의 새로운 말걸기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교내 성폭력·성차별 몰아내기 프로젝트

<#스쿨미투_화형식>

민지

9

회원소모임 MEKA 4기(민지, 이수, 진, 수지, 단, 소희)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던 학교내 성폭력·성차별 몰아내기 프로젝트
#스쿨미투_화형식(이하 #스쿨미투_화형식)이 한 겨울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지난 2018년 12월 27일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스쿨미투_화형식의 사회를 맡았던 민지가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스쿨미투_화형식은 상담소 회원소모임 Meka 4기 모임원들과 9월부터 매달 세미나를 하면서 나왔던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화형식’을 진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쿨미투와 관련하여 연대의 뜻을 담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 합의한 게 전부였죠. 그러다 추운 겨울에 했던 시위나 퍼포먼스 등은 뭐가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딱 떠오른 게 ‘불’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그 더러운 말과 행동들을 내던져 소각시켜버린다니! 특히 이수 님이 만든 포스터가 우리의 열정과 화형식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죠. 후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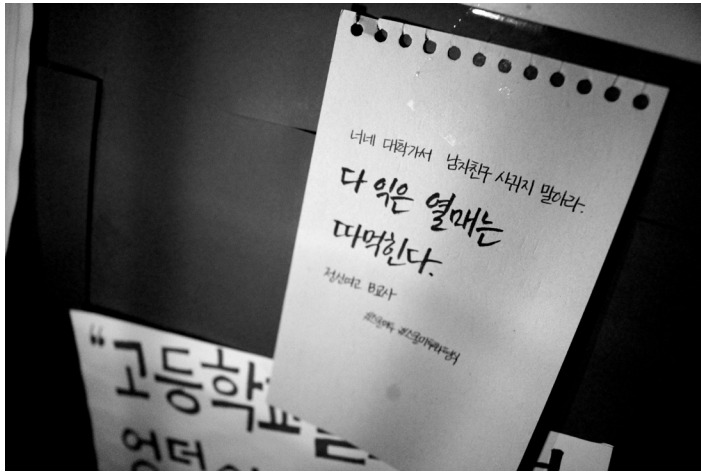
화형식을 하자고 결정한 후, 저희는 매 모임마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화형식 장소는 어디로 할까? 스쿨미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학교이니 학교 운동장에서 거행하고 싶었으나, 쉽사리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럼 상담소 주차장은 어떨까? 공간은 넉넉하지만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역시 이것도 패스. 그렇다면 과연 어디가 불을 써도 안전할 것인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난지캠핑장을 선택했습니다.

사연은 온라인을 통해 제보를 받아보았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탓인지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및 기사 등에서 사례들을 모았고 이를 손글씨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맡았는데 스쿨미투 관련 페이지들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기사 등에 포함된 사례를 제외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은 사전에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SNS 페이지 등에 올라온 사례들의 경우에는 익명인 경우가 많아 사전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제보,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은 사례들을 읽으면서, 성폭력 및 성차별들이 여전히 학교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탄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스쿨미투_화형식 당일이었던 12월 27일, 4시부터 상담소에 모여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품들과 사례들을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많은 사례들은 진행 시간을 고려하여 50개 정도로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난지캠핑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날은 유난히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설 새 없이 몰아쳤고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예약한 캠핑장은 공간은 넉넉했으나 가운데가 뽕 뚫려 있는 천장 탓에 바깥의 추위를 고스란히 느껴야 했고,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인해 비닐로 된 천장과 벽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추위 따위에 질 순 없다! 우리는 덜덜 떨면서도 불을 피우고, 준비해온 물품들을 차곡차곡 정리해나갔습니다. 캄라면으로 허겁지겁 허기를 떼우고, 마이크 및 카메라 테스트 후, 우렁찬 함성과 박수소리로 <#스쿨미투_화형식>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미리 봤던 사연들인데도 직접 소리내어 읽으니 분노가 활활 타



● #스쿨미투_화형식에서 화형에 태워진 스쿨미투 사연. 각각의 내용들이 공분을 샀다. 이 말의 최후는 표지 참조

올랐습니다. 정말 이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연들을 모두 태워버린 후 화형식을 마쳤습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걸 마쳐 속이 시원했으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여전히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화형식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 #스쿨미투_화형식을 생중계한 페이스북 라이브 바로가기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보세요.

스쿨미투 화형식을 준비하면서 사연을 모으던 중, 제 사연을 적으면서 기억을 다시 되살려봤습니다. 그 중엔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있었지만 십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또렷이 남은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겪은 경험 외에도 학교 밖에서 겪었던 경험들도 많았습니다. ‘나는 참 수많은 폭

력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그러한 일들을 겪고 혼자 힘들어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친구들에게 장난식으로 넘기기 위해 말한 것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진지하게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아주 오랫동안 그 ‘이상한 느낌’들을 속으로 삭이며 끙끙 앓았습니다. 혹시 혼나진 않을까 무서워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고, 이상한 아이로 여겨질까 두려워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쿨미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eToo운동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 촉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함께 자신의 경험 폭로, #Withyou라는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통해 혼자 아픔을, 그것은 내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는 작지만 거대한 권력 사회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전 세계, 그리고 한 국가 사회에서 수많은 성폭력을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이들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지금껏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 전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폐쇄적이었던 만큼, 일터, 학교 등의 작은 사회들에선 물론 더욱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젠 이 폐쇄된 성벽을 깨부술 차례입니다.

화형식 마무리 멘트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학교를 다녔던 ‘나’로서 현재의 ‘나’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미래의 ‘나’가 다닐 학교 내 성폭력 및 성차별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연대할 것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및 성차별이 근절되어 모두가 하나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평등한 공간이 될 때까지, 성평등한 성교육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뱉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 KSVRC 활동가 영양강화 프로그램

백말띠 요리대결!

요리멘토_백목련

‘
때는 바야흐로 2019년 1월 4일,
각종 회의를 비롯해 사업 마감과 총회 준비로
정신도 체력도 모두 소진하기 직전인 활동가 14명을 위해
두 명의 도전자가 나섰다.
그들은 바로 남아선호사상과 여성혐오의 협공으로
역대 최악의 성비 116.5를 기록한 1990년,
백말띠 해에 살아남은
성문화운동팀의 신아와 부설연구소 올림의 주리! (두둥)

조건은 평등하게! 메뉴는 다양하게!
두 도전자에게는 15,000원의 재료비와 2시간 반의 장보기 및 조리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고등어김치찜으로 메뉴 선정부터 기선을 제압한 주리에 맞서는 신아는
연말에 각종 요리 책과 블로그를 섭렵하면서 활동가들 입맛을 고려한
두부야채전골을 선택했습니다.



견제와 기싸움으로 숨 막혔던 장대한 요리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장보기



주리
꼼꼼히 재료를 고르고 있는 주리,
어느 것이 싼가~
갓 손질한 싱싱한 재료를 골라 담은
주리는 상담소로 출발!



신아
휘적휘적 대충 장보는 것 같지만
빛과 같이 빠르게 장을 보는 신아!

재료 손질 및 조리

요리멘토 은희조의 밀착 조언으로
묵은지 손질법을 배우고 있네요.



•요리 꿀팁•
고등어 비린내의 주범은 고등어 껍질.
쌀뜨물에 행군 고등어 껍질을
굵은 소금을 손에 묻혀 열심히 닦습니다.

표고에 십자 모양내고
먹기 좋은 크기,
보기 좋은 크기로
재료 손질하는 중~



•요리 꿀팁•
야채 손질 후,
두부와 대파를 구워서 넣어주면
맛이 2배!

맛있게 김치에 돌돌만 고등어는
갖은 양념과 야채 넣어
보글보글 푸욱 익혀 줍니다.



가지런하~
식욕을 돋굴 수 있는 플레이팅으로
전골 재료를 넣고
온기 유지를 위해 슬로우쿠커에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그러나 요리멘토 백목련의 조언을
무시한 대가로 식사시간까지
끓지 않았다는 후문.



고등어김치찜
아들아들 잘 녹은 김치에
비린내 하나도 안 나는 고등어,
맛이 잘 베인 무... 아유,
균침 돈대!



두부야채전골
드디어 완성된 신아의 전골.
담백하고 습습한 맛,
눈으로 먹는 재미가 충족되네요.

👨‍🍳 시식과 평가

초미세 맛평가하며
시식 중!



👨‍🍳 투표 단계



사진으로도 이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자와
대기자 모두 넋짝이 떨어져 있습니다.

👨‍🍳 우승자 발표

도전자보다 더 손 떨려하는 심사위원들..
그 이유는 한 명 빼고 다 주리에게
투표했기 때문인가요? (눈물)



👨‍🍳 뒷정리



두시간 반동안 고생한 도전자와 멘토는 빠져랏!
심사위원 중 가위바위보에 진 유랑과 파이가
좁은 부엌을 활용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요리대결 끝!

신아와 주리의 팽팽한 대결 덕분에 활동가들은 원기 회복, 생기 상승~
다시금 2019년 새해를 위해 준비된 “편다!” 상담소가 되었답니다. 우승한 기
념으로 월간 요리 대결을 요청한 활동가들 때문에 명예와 명예를 모두 얻
은 주리, 4:1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깔끔히 인정하고 주리가 또 고등어김치
찜 해주면 좋겠다는 해맑은 신아, 다음 대결을 또 기대할게요◎

파끈파끈한 요리대결 소식을 마무리하며 이상 KSVRC 특파원 백목련이
었습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주)케이스토리, 강길오, 강동희, 강신오, 강양희, 강인혜, 강정희, 권경아, 권주영, 권혜진, 김도린, 김도린, 김미영, 김민정, 김민진, 김보명, 김빛, 김세훈, 김선하, 김선하, 김선하, 김선하, 김성준, 김성준, 김소희, 김소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연, 김수정, 김수정, 김세아, 김연순, 김용선, 김용선, 김원경, 김원경, 김원오, 김원오, 김은하, 김희자, 김정은, 김지희, 김지영, 김지윤, 김지윤, 김재현, 김혜진, 나성은, 남병희, 남승현, 남승현, 노현오, 노희지, 노희지, 노희지, 마창용, 민사라, 박경숙, 박계나, 박계나, 박기민, 박명진, 박신희, 박성준, 박소희, 박수진, 박용순, 박정훈, 박혜진, 박혜찬, 배애향, 배계은, 백경원, 백용민, 백용민, 백준오, 법무사 김강호사무소, 서보일, 송민영, 송주진, 송정연, 신동훈, 신상일, 신진, 신한솔, 신한주, 신희원, 신희원, 안춘기, 양영자, 양성은, 양주예, 양주예, 양다희, 양다희, 양수연, 여주하, 오베근하사무소, 오성훈, 오수진, 오영일, 오영일, 오영일, 오지연, 우호택, 유인규, 유준석, 유준석, 유영하, 유영하, 이건국, 이진국, 이규호, 이규호, 이미희, 이산, 이수빈, 이수열, 이수정, 이수정, 이슬비, 이승우, 이승철, 이연표, 이원택, 이윤진, 이윤진, 이윤솔, 이은정, 이은정, 이장우, 이정숙, 이정숙, 이지영, 이하영, 이한, 이현정, 이홍은, 이홍은, 임경일, 임철아, 임철원, 장수경, 장정훈, 전소연, 전유나, 정민석, 정민석, 정영애, 정재우, 정재철, 정재철, 정지운, 정현주, 정현주, 정의석, 조경립, 조민정, 조민정, 조순영, 조재연, 조정민, 지오, 진수희, 진수희, 최보미, 최수립, 최희범, 톨스위즈, 하름, 하유림, 한수연, 한애슬, 허지혜, 홍찬숙, 황한나(이상 176명)

〉 상담소와 울림에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illegible]

윤양지, 윤려란, 윤령수, 윤령숙, 윤영호, 윤은정,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하연, 윤혜영, 음선화, 이건국, 이근정, 이경숙,
이경은, 이경호,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나연, 이나영, 이난주, 이남주, 이다은, 이다정, 이대명, 이동구, 이동규, 이동현,
이명숙, 이명신, 이병희, 이문주, 이미경, 이부덕, 이산, 이상미, 이상용, 이상재, 이세훈, 이서영, 이선영, 이선혜, 이소림, 이소연,
이소희, 이소희, 이수열, 이수진, 이수진, 이순하, 이슬, 이슬기, 이슬비,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승철, 이승훈, 이시윤,
이연정, 이연표, 이영근, 이영기,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완택, 이용택, 이우진, 이원형, 이원홍,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희, 이민, 이민성, 이은선,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계순, 이재원,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중연, 이중희, 이준별, 이준형, 이지선, 이지영, 이지원, 이지는, 이지행, 이지혜, 이진하, 이진이, 이창원, 이창희,
이태숙, 이태호, 이태라량, 이해연, 이항식, 이현숙, 이현정, 이영희, 이예경, 이예경, 이예경, 이혜란, 이혜실, 이혜정, 이재지,
이호선, 이호진, 이흥연, 이흥은, 이희동, 이희수, 이희화, 임건호, 임경일, 임경진, 임금희, 임시영, 임수민, 임승영, 임유영,
임유정,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천용, 임형숙, 임효진, 임홍선, 임희운, 장광미, 장미정, 장민정, 장성연, 장성희, 장수정, 장수정,
장영아, 장예리, 장윤성, 장윤선, 장윤석, 장윤진, 장은미, 장은영, 장은주, 장재온, 장정옥, 장철우, 장채란, 장효정, 전미숙,
전민주, 전범지, 전복래, 전복생, 전주선, 전연배, 전영미, 전용정, 전유나, 전유미, 전진수, 전정숙, 전정현, 전지연, 전제미,
전화정, 정경애, 정경자, 정광, 정교하, 정기영, 정대근, 정덕기, 정동연, 정두영, 정문영, 정민성, 정민수, 정민이, 정보배, 정복련,
정수연, 정숙정, 정슬아, 정여진, 정영미, 정영석, 정영선, 정영애, 정예지, 정옥숙, 정유석, 정윤성, 정은아, 정인희, 정정기,
정준애, 정지은, 정지은, 정지현, 정지훈, 정진주, 정진화, 정원, 정원주, 정혜음, 제갈향선, 조경림, 조경오, 조개삼, 조광연,
조గు선, 조단강, 지나가 피 아울러, 조동현, 조민우, 조서인, 조선주, 조소연, 조수연, 조성진, 조웅연, 조웅정,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을, 조은정, 조인석, 조인실,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연, 조정민,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하영,
조혜연, 조흔재, 조광용, 주명희, 주희진, 지수경, 지인숙, 지인순, 자선주, 차성안, 차인숙,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원정, 천창야, 천창환, 최경성, 최거영, 최대연, 최동성, 최단, 최민석, 최귀자, 최병석, 최보미, 최보연, 최선아, 최성화, 최수연, 최숙희,
최아름, 최현성, 최연정, 최영애, 최영철, 최옥정, 최왕열, 최용득, 최원일, 최윤희, 최윤성,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영정, 최은정,
최지나, 최지영, 최지은, 최진경, 최진란, 최효선, 최희범, 최희중, 추민주, 추정희, 추지원, 탁수정, 톨스워즈, 표승휘, 하다영,
하람, 하우림, 하은주, 하수선, 하수연,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수언, 한승진, 한승희, 한여선, 한영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얼아, 한정림, 한찬희, 한희정, 함경진, 허라금, 허민숙, 허선원, 허선형,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은, 허지혜,
허해진, 현정성, 혜상삼,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황성미, 황기자, 황나사, 흥은성, 홍길정, 홍진경, 홍찬성, 홍혜선, 홍혜린,
황치선, 황선성, 황성기, 황성일, 황소영(이탄), 황숙희, 황순경, 황하나, 황정진, 황지영, 황하나 (이상 888명)

〉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병덕, 강장자, 강지연, 강진자, 김정현, 김미주, 김정희, 김지은, 김효선,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노주희, 박미란, 박부진, 박성찬, 박옥순, 박민희, 박종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순희, 배정철, 송미현, 신상호, 안현진, 오주현, 유정화, 이경환, 이복성, 이준희, 이상하, 이영희, 이유미, 이혜사랑, 이현상, 임미하, 임승연, 임조룡, 임호진, 장운용, 장철우, 장명준, 정순희, 조인석, 조미래, 최보민, 최수진, 최영애, 최진주, 하도호, 허정, 홍윤기(이성 58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재득, 강지아, 고화정, 박선하, 권은숙, 금보경, 김경태, 김도홍, 김도희, 김미란, 김미향, 김민승, 김신환, 김성준, 김소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정, 김수진, 김승일,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연정, 김희지, 김원오, 김수경, 김유정, 김윤솔, 김자연, 김태연, 김혜연, 김성진, 김효진, 김희창,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하연, 노희지, 류종현, 문수연, 미씨유정, 민슬기, 박지나, 박지정, 박상희, 박성정, 박아름, 박은경, 박민필, 박은숙, 박준숙, 박현희, 박희주, 배정원, 백미선, 백승민, 서범선, 서희정, 서해인, 소플터미스트 서초클럽, 송미현, 송민성, 신경혜, 심장현, 심진실, 심현실, 안분순, 안재희, 안효선, 양미초, 양윤희, 양주애, 양현정, 엄다희, 오경은, 오두환, 오진호, 오영일, 오정희, 오희중, 유미란, 유선옥, 유예나, 유진영, 유혜숙, 이가람, 이경진, 이계형, 이명희, 이미홍, 이병주, 이상규, 이상연, 이상아,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신율, 이이진, 이예담, 이옥영, 이윤실, 이은정, 이채연, 이정봉, 이정숙, 이경화, 이종국, 이창아, 이주실, 이진향, 이찬희, 이태복, 이향실, 이향화, 이창찬, 이호중, 임우영, 임지선, 임지순, 장다혜, 장명환, 장희진,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정민식, 정순희, 정재철, 정정의, 정정의, 정창수, 정현주, 조경진, 조민정, 조성은, 조영매, 조윤기, 조은희, 조종신, 조현아, 조타클럽, 주혜명, 주혜정, 진수희, 채송희, 최가람, 최강현, 최세은, 최윤미, 최경민, 최정민, 최정희, 추주형, 표아림, 하동호, 한국기독교교신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아마추스기악작(주), 한영규, 한전부녀회, 한정은, 한진희, 하복옥, 허정연, 허재량, 홍나연, 홍윤기, 황동하, 황유나, 황은순 (이상 172명)

〉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시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재)심평문화재단, (주)문화동네, (주)청산건설, 강영민, 국제존타클럽 지스바우위원회, 권은영, 권진영, 김민지, 김성철, 김안나, 김은영, 김해철, 김현식, 노수현, 노혜송, 대구외교 방글. 모순찬, 문지현, 박민지, 박선희, 박정혜, 박지영, 변태정, 뽕간소파스튜디오, 손승영, 신상일, 안선경, 안은나, 원미라, 유지진, 유한희사 체리츠, 윤여용, 윤운주, 이상희, 이세린, 이수진, 이승우, 이신율, 이찬희, 이혜성, 임성민, 임희정, 장성재, 장성준, 조성희, 조세웅, 조은진, 조일배, 조연미, 조혜수, 조희라, 지슬미, 진수희, 진희나, 차상기, 최민기, 최희라, 정호, 하현숙, 한창아, NFLPL이벤션, wona(원아) (이상 63명)

훈훈한 기부

{ 상담소 }

이현숙님의 더위를 날려준 시원한 아이스크림 두 보따리
양가연님의 제주산 꿀 한 상자과 조천 참외
이윤정님의 단아한 향 가득한 오설록 차 세트
황선미님의 커다란 수박 한통
이효숙님의 향과 맛이 일품인 커피 원두 3봉지
정유석님의 맛있는 강원도 옥수수 2자루
홍윤희님의 태백에서 온 2018년 마지막 옥수수 1상자
홍찬숙·김보명님의 건강빵 한 보따리와 음료
배복주님의 러시아 산 향긋한 얼그레이 티
이경환님의 고소고소한 견과세트
정혜선님의 건강만점 사과세트
제이님의 아롱아롱 알찬 포도 4송이
조인선님의 우아한 와인 16병
장광미·장정란님의 참치 선물세트와 미세먼지 날려버릴 배즙 1상자&도라지배즙 2상자
캐시님의 애정 듬뿍 담긴 사미드 인형
김미선님의 탐스런 복숭아 1상자
최김희정님의 따뜻한 호두과자 1상자
이토 시오리님의 정갈한 일본과자
신지이님의 힘이 불끈 나는 핫식스 10캔
마초토도·요시다·김성은님의 먹기 아깝게 예쁜 일본과자
마이라님의 물건너 온 두리안 초콜릿과 과일 카라멜
추지현님의 반가운 소식과 함께 도착한 꿀 2상자
이윤상님의 맛깔스런 김치 1상자
염윳집 이웃이 앞마당에서 직접 키운신 무농약 단감 한 상자
신동언님의 새콤달콤 꿀 3상자
천정환님의 가볍게 떠날 때 유용한 여행용 화장품 40개
최희운님의 고급진 맛의 만쥬 1상자
김성자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꿀 3상자
김효선(제주)님의 비타민C 가득한 꿀 1상자
김엘림님의 시원하고 상큼한 꿀 1상자
강유가람님의 식곤증을 날릴 비타민음료와 꿀
주리아버지 성수동 맛집 성수동꿀파배기 간판 상품인 꿀파배기, 찹쌀도너츠 2상자
상담소를 찾아주신 **생존자**분들의 풀깃한 떡 1상자, 고급스런 이플 3상자, 당충전만땅 던진도넛 1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전기압력밥솥, 보온죽통도시락, 음식보관용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승진&리야**님의 달콤한 초콜릿과 체리 2상자
〈서울시향〉 박지혜님의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과 포도
〈아시아재단〉에서 건강한 맛이 살아있는 음료 1상자
〈금산간디학교〉에서 달콤한 쿠키 1상자
〈경찰청〉에서 고소한 쿠키 2상자
〈서울여대〉학생분들의 돌돌 딸기물케이크
〈경찰청 여성대상범법죄근절추진단〉 구유진님의 몸에 좋은 우리밀 전병과 빵
〈호주대사관〉 이윤이님의 고급스런 와인 1병

{ 얼림터 }

이동원님의 여러 가지로 맛있게 만들어 먹는 오투가식품 식재료 한 상자
정유석님의 직접 농사지은 찰~진 찰옥수수 두 자루
이윤상님의 김장철에 갓 담가 아삭아삭한 김치 3kg
최란님의 겨울나기용 비타민 충전 감귤 5kg
백목련님의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1상자
최지나님의 신으면 푹푹푹 푹 수 있는 양말 10켤레
자우님의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쿠키 1상자
만두님의 망원 맛집 투썸조업에서 공수해온 맘모스빵 3봉지
은서님의 건강만점 샌드위치 8팩
나비님의 온 국민의 달콤 간식 빅파이 1상자
〈성수동꿀파배기〉에서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파배기 2상자
〈존타클럽 지스바우위원회〉에서 정성 가득 약식 1상자, 달콤 초콜릿 2봉지
〈100주년기념교회〉에서 감사절기념 영양 가~득 찹떡 1상자
〈제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린티〉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휴대용 선풍기 4대